

〈제 582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은행

◆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릴레이 동참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 캠페인’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다음 주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캠페인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송경용 동신대학교 대학원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힘내라 광주·전남 #힘내라 지역경제 #힘내라 소상공인’의 응원문구를 직접 써 캠페인에 동참한 임직원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금호타이어

◆ 유럽 전용 타이어 출시



금호타이어(대표이사 전대진)는 지난 20일 유럽 전용 사계절용 타이어 ‘솔루스HA32’를 출시했다. 솔루스 HA32는 유럽 기후와 도로 조건에 맞춰 설계된 사계절 타이어로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뿐 아니라 눈길에서도 안정적 주행 성능을 구현하며, 최첨단 소재와 지그재그로 교차하는 V자형 패턴을 적용해 접지력과 성능을 높였다.

또한 솔루스HA32는 출시 전부터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2020’의 운송 기기 부문에서 본상을 받으며 디자인 역량을 입증 받았다.

금호타이어는 14인치부터 18인치까지 모두 42개 규격의 폭넓은 라인업으로 유럽시장에 솔루스 HA32를 출시하고,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시장 수요 확대에 따라 올해 안에 20인치 제품도 출시하기로 했다.



전일 초대석 김봉길 제16대 광주경영자총협회장

대담=김기종 편집국장

“포스트코로나 지원·광주형일자리 연착륙 역할 다할 것”

약력

▲여수 수산대 졸업(1967)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1980)
▲전남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1996)
▲광주과기원 TMB과 과장 수료(2011)

▲삼각에프엠씨 설립 대표이사 회장(1975~)
▲삼각에프엠씨로 설립 대표이사 회장(1990~)
▲월빙랜드 설립 대표이사 회장(2004~)
▲한서한 설립 대표이사 회장(2015~)
▲기술보증기금 기보회 전국연합회 회장 역임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 기업협의회 회장 역임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 기업협의회 회장 역임
▲대한적십자사중앙위원회 역임
▲(재)복수장학재단 이사장(2018~)
▲16대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2020년 2월26~)

삼각에프엠씨 45년 경영 식문화·음료·에너지사업 확장

(우)삼각에프엠씨는 지난 1975년 삼각기제자소를 설립, 통조림 관제기 제작을 시작으로 국내 식품자재화기기 개발에 나섰다. 지난 40여 년 동안 동원, CJ, 코카콜라, 롯데, 현대 등 국내 식품기업과 사업을 통해 식품기계산업 발전과 경제발전에도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병동단 내 유한회사 삼각에프엠씨를 육성, 한국 식품기계산업 발전의 선봉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 1990년 광주 하남산단 내에 냉장고 및 냉동수송기를 냉각 콘덴서 제조회사를 설립해 사재를 확장하며 국내 시장점유율 50%이상의 우수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2004년 총산 노선에 투자 규모 200억원 식문화사업 유한회사 월빙랜드를 창업, 음료 및 절임식품 제조 분야 사업에 뛰어 들었으며 글자의 식품회사로 도약했다.

2011년부터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중국, 미얀마, 베트남 등에 진출했으며 중국에 수산처리시설 160만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2012년 총산제조설비로 750만달러 수출실적을 올려 5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2014년부터 건강음료인 알로에음료를 미국 등에 수출하면서 2016년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3년만에 2000만불을 돌파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결연후원금과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봉사과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소방관 자녀 장학사업 특수 장학회 이사장으로서 활동하며 지역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해오고 있다.

김 회장은 각종 상을 수상하며 지역 경제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1997년 대통령상 수상, 2002년 중소기업청 경영대상 수상 및 우수자본 계 개발관련 산업자본부장관상 수상, 2005년 우수자본계 개발관련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박진태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기업은 물론 지역민들 모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최대 과제인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연착륙 해 순항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에도 앞장 서겠습니다.”

지난 2월26일 제16대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에 취임한 김봉길 회장은 장맛비처럼 쏟아진 지난 19일 인터뷰를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향후 3년의 임기 동안 추진하려는 사업 계획을 들려줬다. 50년 가까이 사업가로 현장에서 직접 활동한 덕분에 그가 들려주는 광주경제의 현주소, 광주경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한 얘기는 흥미진진했다.

—광주 경제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달라.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981년에 고용노동부 허가 경제단체로 설립됐다. 주요 목적사업으로 고용과 노동문제, 인적자원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기업경영체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경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대정부 및 의정단체 활동을 통해 경영체제 입장을 개선하고 있으며, 노동경제교육, 상담진설,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위탁받아 지역 노사관계 조정과 협력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으로는 청년층의 일일협과 취업을 위한 ‘청년일일협·드림사업’ 및 청년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일일협·중소기업·중장년층 교육과 취업’을 위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고 CEO의 경영혁신을 위해 매 개 개최하고 있는 ‘담요조찬포럼’이 올해로 30주년이 되는 해다. 더욱 알찬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월 제16대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향후 3년간 역점 추진하고픈 사업 있는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취임하게 돼 부담감과 책임감이 크다. 산업이변이 취약한 광주는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인 주8시간 제도 시행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기업존속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기업의 생존과 발전이 지역의 고용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과 제도 개선 등 규제개혁을 위해 전국 경제와 공동으로 대정부 및 의정단체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하겠다.

지역생산제품 유통하기와 지역기업 사활하기 운동을 펼쳐서 일자리가 유지되고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역민들의 많은 동참 바란다. 기업인들의 경영혁신과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담요조찬포럼’도 기업과 CEO 중심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경제 수장으로 광주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 한다.

△광주경제는 기본적으로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그나마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최근 경영악화에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들도 독자적 기술력을 갖



김봉길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역경제 최대 과제인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연착륙 해 순항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에 앞장 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역CEO 대상 담요조찬포럼 30년째 진행 자부심 고용·노동문제 한층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 갖길 소망관 자녀 돕는 복수장학재단 이사장 맡아 활동

추고 있기 보다는 대기업 협력업체 구조로 돼있고 보니 성장에 한계가 있고 자연히 청년층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기업인의 의지와 노력이 우선돼야 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과 노사관계 관련 법과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국내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포함한 투자 유치가 절실하고 오랫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향토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미래먹거리 산업이며 4차 산업의 핵심인 AI산업 기반을 광주가 앞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광주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광주는 광주형 일자리가 미래 광주경제의 먹거리이자 화두인데.

△많은 우려와 기대 속에 노사상생형 일자리를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도한 규제와 고임금 구조, 노사관계의 불안이 그동안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으로 끌려간 주요 요인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적정임금과 노사상생 및 노사민정 연대를 통한 광주형 일자리는 국가와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노사민정이 협력 협심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안전한 국내로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에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경제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역할과 입장은 어떤가.

△광주형 일자리의 출범부터 지금까지 광주경제는 역할을 꾸준히 해왔다. 특히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의 공동의 협력과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광주형 일자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때마다 시작 할 수 있는 큰 힘이 됐다. 앞으로도 광주경제는 노동계와 서로간의 이해관계와 이익의 차이를 넘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노사가 상생협력하는 대의적인 시각에서 부단히 협조하고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기업들이 투자

한 만큼 지역 경제의 복소에도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주시 바란다.

—비록 노사관계의 방향은 따라고 생각하는가.

△지금처럼 시대가 급변하고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로는 기업도 근로자도 생존할 수 없다. 전통적인 노동 프레임으로 새로운 산업변화에 대응 할 수는 없다. 이제는 노사가 같이 협력하고 공동영생체로서 역할을 함께 하더라도 생존과 발전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개척하고 노사가 공존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문화가 형성돼야 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노사의 이익대립 중심의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경제체제 모두가 윈윈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야 할 때다.

—코로나19로 지역 고용문제가 난한 해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달라.

△코로나19 사태로 수출, 소비,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의 하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4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7만명 감소하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이고 광주도 8000명이나 감소했다.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제조업까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출 감소와 매출 하락으로 인건비 부담도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기업이 쓰러지면 일자리도 당연히 사라지게 된다. 기업에

대한 지원지침 등 단기적 대책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사 간 이해와 양보는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이후 기업마다 지속 가능성이 관건이다. 지역 경제인들이 추구해야 할 경영 가치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의 변화는 가히 짐작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어려운 환경에서 도전을 일삼아 해야 하는 것이 기업가의 숙명이다. 기업인들은 기업경영 활동을 통해 세상을 풍요롭게 편리하게 해야 한다는 경영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미래에 대한 예측력과 해안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데 대한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 광주경제는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세상의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가의 비즈니스 교류와 교육의 장으로서 ‘담요조찬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경제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

—45년동안 기업을 경영하면서 사회혁신활동도 많이 했는데.

△기업의 성장 및 발전은 지역문화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조화를 이룬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 기업이윤의 지역사회 환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결연후원금과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봉사와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소방관 자녀 장학사업 특수장학회 이사장으로서 장학사업을 활발히 하며 지역사회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사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조그만 정성을 보냈다.

—경제 가족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 해달라.

△지금 시대적 화두는 고용과 노동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경제가 이 중요한 문제에서 있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져주시 바란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하며 동시에 기업경영의 파트너로서 노사관계의 선진화와 상생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광주경제중앙위원회가 지역의 역량이 우수하여 조직의 역량이 커지고 이를 통해 회원들을 포함한 지역기업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광주경제중앙위원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꼭 필요한 단계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광주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경제인들에게 조언 한마디 한다.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와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역경제 발전과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모든 경제인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 드린다. 언제나 그렇듯이 개인 의 삶도 그렇고 기업의 역시도 뜻하지 않는 위기가 닥쳐온다.

우리가 지난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파장이 크고 끝이 없을 것 같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기뻐할 만한거는 슬기로운 기업인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광주경제중앙위원회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각종 사업 활동에도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

정리·박진태 기자(janpark@jnb.co.kr)

전일 초대석

II. 광주경충 소식

〈제1차 인사노무협의회 개최〉



본회는 지난 21일 노사민정 사무국 회의실에서 지역 내 업종별 기업 인사·노무 부서장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해 지역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1차 인사노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소비와 생산이 줄어들고 지역 내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타격이 현실화된 가운데 주요 업종별 피해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협의회에 참석한 기업관계자는 판매부진 및 조업중단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에 기업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유동성 공급 확대 및 기업금융 지원, 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 그리고 고용유지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건의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사무국 일지(5. 18 ~ 5. 22)

5. 19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 ●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연구용역 중간점검 회의 	5. 21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인사노무협의회 회의 ● 고용센터 취성패 운영위원회
5. 20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와 혁신’ 광주형일자리 관련 인터뷰 	5. 22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485회 금요조찬포럼

II. 광주경충 소식

〈제1485회 금요조찬포럼〉

광주경영자총협회는 5월22일 오전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최용균 비전경영연구소장을 초청 <리더에게 꼭 필요한 감성경영>이란 주제로 제1485회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리더란 일정한 목표달성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스스로 자신과 남을 잘 이끌어 나가는 능력을 말한다. 차세대 리더십은 다음과 같다. 팀원의 성장을 돕는 것을 시작으로 팀원을 배려하고,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며, 공로를 팀원에게 돌리며, 팀원을 잘 이끌며, 비전을 제시하며,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감성형 리더가 이 시대의 리더십이다.

오늘날을 감성경영의 시대라고 한다. 성공리더의 공통 자질은 지적 기술적 자질과 감성적 자질이 있는데, 감성적 자질은 열정 넘치는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기술, 설득력, 강한 유대감, 동기부여, 성실성 및 도덕성, 자만심의 견제, 경험의 적절한 활용, 내적평화, 긍정적 태도,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려는 의지 등이다.

코칭의 3가지 철학으로 1철학은 사람에게 무한한 가능성, 2철학은 해답이 그 사람 내부에 존재하고 3철학은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요즘 신바람 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행복나눔125’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1주1선으로 일상의 선행을 통한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형성하고, 1월2독으로 독서를 통한 창의, 소통 문화형성 하는 것이며, 1일5감인 감사 나눔을 통한 행복문화를 형성하는 운동이다. 문화영역을 가까이 할수록 감성지능이 살아난다.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코칭과 교육을 통해 실현가능해진다.



1. 노사 동향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5. 20)

- 금번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4월 중순부터 노사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고용 위기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성사
- 금번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 공감하고 경제·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기업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지키기”라고 강조하고,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지속적으로 확대·시행되어야 하며, 노사도 임금과 고용 간 대타협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 표명
 -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하여 우리의 노동 관련 제도와 관행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발언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는 “최소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해고없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재난 시기 모든 노동자의 해고 금지’, ‘전국민 고용 보험제 도입 등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주장

■ 노동계는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정치활동 진행

- 한국노총 집행부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간담회 진행(5. 19)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체결한 ‘5대 비전, 20대 공동

Ⅲ. 노사 및 판례동향

약속'이 21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으나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중심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

※ '5대 비전 20대 공동약속' 주요 내용 : ▲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 ▲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종사자의 사회보장 및 노조 할 권리 보장,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등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책동반자 관계”라고 밝히고, 현재 고용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며 한국노총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

○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의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간담회 개최(5. 19)

※ 간담회 참석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유재길 부위원장, 이주호 정책실장,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강은미·류호정·이은주 국회의원 당선인 참석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전태일2법'과 산재발생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의당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 표명

※ '전태일2법' 주요 내용 : ①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종사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②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근 많은 사업장이 코로나19 위기를 핑계로 정리하고·무급휴직 등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히고, “해고 없는 위기 극복이 돼야 하며, 민주노총과 동반자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발언

■ 민주노총은 현장투쟁 활동 진행

○ 민주노총은 5. 19 '2020 차별철폐대행진' 기자회견 개최

- 민주노총은 5~6월 주요 사업계획을 '비정규직 차별철폐 투쟁, 최저임금 인상투쟁'으로 설정했으며 4주간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 투쟁을 전개 예정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에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특수형태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생계소득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쟁취, ▲재벌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모든 근로자에게 노동법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 민주노총은 4. 16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핵심사업 기조를 ‘해고금지, 총고용 보장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대응 전면화’로 결정하고 5월 중 비정규직 차별철폐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

- 민주노총은 금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보호 확대 및 차별금지,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이슈화해 나갈 방침이며, 7. 4 10만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방침

2. 판례 동향

업무 관련 행사를 마치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 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대법원 2020.3.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1. 사실관계

- 이 사건 회사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4.14. 품평회를 개최함.
 - 이 사건 근로자는 안전관리팀 팀장으로서 품평회의 총괄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관리했으며 2016.3월~4월 내내 품평회를 준비함.
 - ※ 품평회 : 완성될 건물의 안정성과 완성도를 미리 예측하고 향후 공사의 진행 방향과 전략을 정하는 중요한 행사
- 품평회 종료 후 1, 2차 술자리 회식이 있었고, 비용은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함.
- 회식 종료 후 근로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퇴근하던 중 왕복 11차선 도로의 횡단 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부딪혀 사망함.
- 이에 근로자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함.
 - 원심은 과음으로 판단능력 장애가 있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무단횡단은 퇴근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 ※ 원심은 대중교통을 스스로 이용한 점, 지하철 이동 중 자신의 처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가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함.

2. 판결요지

- 사망한 근로자는 사업주의 중요한 행사로서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품평회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Ⅲ. 노사 및 판례동향

- 1차 회식은 공사의 현장직원 23명 전원이 참석했고 2차 회식에는 안전관리팀 5명을 포함한 총 9명이 참석했으며 모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된 점을 고려할 때 1·2차 회식 모두 사업자 지배 범위에 해당함.
- 근로자는 평소 자신의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했고, 품평회 등 회사 전체적인 행사가 있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도록 회사가 권고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퇴근 과정은 통상 수반하는 위험으로 볼 수 있음.

3. 시사점

- 금번 판결은 회사의 중요한 행사를 마치고 마련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식 후 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회식의 업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함.
- 사고의 원인을 11차선 도로 무단횡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 지배 범위 내에서 촉발된 음주와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보고 있음.
-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합리성이 결여된 퇴근 방법으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를 부정하는 하급심 판결들도 존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무단횡단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 일률적인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판단은 어렵겠지만 업무상 회식으로 인한 음주와 그 상태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높음.
- 대법원은 부대회식 후 퇴근 중 무단횡단(왕복 10차선 도로)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번 판결과 같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대법원 2015두42190). 끝.